

IPTV 서비스의 본격적 확대가 가져올 미래의 장밋빛 전망과 반대로 장기적인 수익성 악화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신규서비스에 대한 시장선점의 이익이 큰 통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적 문제로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국내 IPTV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과생 투자 지연은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한다. 향후에도 IPTV 서비스가 국내에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적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1] "AT&T lays out 2008, long-term forecast", Total Telecom, 2007. 12. 11.
- [2] "AT&T to stop offering DirecTV in late 1Q", Total Telecom, 2007. 12. 12.
- [3] "AT&T turns on higher speed backbone network", Total Telecom, 2007. 12. 10.
- [4] 김사혁, 『AT&T의 IPTV서비스, Cash Cow가 될 것인가?』,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18권11호, 통권395호, 2006. 6. 16, pp.25~29.

---

## 세계의 디지털TV 보급 전망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주임연구원 신호철  
(T. 570-4054, animeshin@kisdi.re.kr)

### 1. 개요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과 함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발전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서는 영국의 IT 컨설팅기관인 Informa Telecoms & Media의 최근 시장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전세계의 디지털TV 보급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본문

#### 가. 총론

Informa Telecoms & Media(2007)에 따르면 2007년에 디지털TV 가입가구수가 약 5,400만명 늘어나 전세계적으로 2억 3,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

털TV 보급률은 2007년말에 22%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의 디지털TV 보급률은 68%를 넘을 것이며 서유럽은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전세계적으로 5,200만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까지 세계 TV가구수의 43%가 디지털 신호를 수신할 것이며 그 수치는 5억 400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표 4>를 살펴보면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디지털TV 가입가구수가 2억 6,500만명 증가,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중국은 6,000만명의 가입가구수 증가로 디지털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미국(3,900만명), 일본(2,000만명) 그리고 인도(2,300만명) 등이 상당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4개국은 추가적인 디지털 가입가구수의 5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도 디지털 가입가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케이블은 디지털TV 가입가구수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서 2012년에 2억 4,900만명에 이를 전망이며 디지털위성(DTH)은 두 번째로 일반화된 매체로 1억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7년 한해 동안 디지털케이블 가입가구수는 디지털위성 가입가구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2012년 디지털TV 가구수 전망

(단위: 백만명)

	디지털지상파	케이블	디지털위성	IPTV	총 TV 가구수
아시아	20	113	32	16	625
동유럽	7	11	9	2	127
서유럽	54	36	32	13	156
라틴아메리카	2	12	7	1	110
중동	2	2	2	0	20
북아메리카	12	76	38	5	133
합계	97	249	120	37	1,172

주: 1. 디지털지상파는 케이블, 디지털위성, IPTV 신호를 수신하지 않음

2. 총 TV 가구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수신 가구를 포함

3. 중동은 이스라엘과 터키만 해당

자료: TVinternational(2007)

9,700만명의 디지털지상파(DTT) 수신가구수와 3,700만명이 IPTV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6억 6,900만명은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할 것이다. 북아메리카시장은 2012

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서유럽 또한 상당히 높은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는 디지털 전환이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보급률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2012년 매체에 따른 TV가구수의 분할

(단위: %)

구분	디지털지상파	디지털케이블	디지털위성	IPTV	아날로그
아시아	3	18	5	3	71
동유럽	5	9	7	2	77
서유럽	34	23	21	8	14
라틴아메리카	2	11	6	1	80
중동	12	9	8	2	69
북아메리카	9	57	29	3	2
전체	8	21	10	3	58

주: 수치는 연말 기준, 중동은 이스라엘과 터키만 해당  
자료: TVinternational(2007)

2012년까지 TV가구수의 58%가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높은 디지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북아메리카는 높은 보급률과 함께 5가구 중 1가구 이상은 디지털케이블을 수신할 것이다. 디지털위성은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는 강세지만 다른 지역은 약한 편이다. 디지털지상파는 서유럽 TV가구수의 34%를 차지할 것이다.

북아메리카는 2007년말에 세계 디지털TV 가구수의 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해에 비해 4% 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12년까지 26%로 감소할 것이며 유럽은 32%에 이를 전망이다. 아시아는 2012년까지 전체 가구수의 36%를 차지하는 등 우세한 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다.

미국은 2007년말에 디지털TV 가입가구수가 7,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추가적으로 3,90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세계 디지털TV 가입가구수 중 23%로 최상위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2년까지 두 번째로 높은 성장을 보일 지역으로 예상되는데 2006년에서 2012년 사이에 디지털TV 가입가구수가 6,8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5개국은 2012년까지 전세계 디지털TV 가입가구수의 57%를 차지할 것이며 이는 2006년 65%에 비해 8% 감소한 수치이다.

〈표 3〉 디지털TV 가입가구수

(단위: 백만명)

구분	2006	2007	2008	2012
아시아	36	54	75	181
동유럽	6	9	12	29
서유럽	62	80	93	135
라틴아메리카	6	8	10	23
중동	2	2	3	6
북아메리카	74	86	98	130
전체	185	239	291	504

주: 수치는 연말 기준, 중동은 이스라엘과 터키만 해당  
 자료: TVinternational(2007)

2012년에는 전체 TV가구수의 약 43%가 디지털 신호를 수신할 것이다. 특히 북아메리카의 경우 2012년에 98%의 보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말까지 영국은 74%로 가장 높은 디지털 전환율을 보였다. 2012년에는 10개국이 90% 이상, 29개국이 50% 이상의 디지털 보급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표 4〉 TV가구수 중 디지털TV 가입가구수 비율

(단위: %)

	2006	2007	2008	2012
아시아	6	9	13	29
동유럽	5	7	9	23
서유럽	41	52	60	86
라틴아메리카	6	8	10	21
중동	10	12	14	30
북아메리카	59	68	77	98
전체	17	22	26	43

주: 수치는 연말 기준, 중동은 이스라엘과 터키만 해당  
 자료: TVinternational(2007)

#### 나. 디지털케이블

케이블 가입가구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TV에 있어 가장 흥미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약 2,800만명의 신규 디지털케이블 가입가구수가 2007년에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되어 2012년까지 전체 디지털케이블 가입가구수가 2억 4,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아메리카는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북아메리카의 디지털케이블 가입가구수는 2007년말에 전세계 디지털케이블 가입가구수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2012년에는 30%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아시아는 현재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 2012년에 미국이 디지털케이블 가입가구수 6,800만명에 이르는 동안 중국도 6,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5개국은 2012년에 전세계 디지털TV 가입가구수의 70%를 차지할 것이다.

북아메리카의 약 57% 가구는 2012년까지 디지털케이블에 가입할 것이며 2005년 31%에서 26% 증가할 것이다. 반면 2012년의 디지털 보급률은 서유럽이 23%, 아시아가 18%에 도달할 것이다.

#### 다. 디지털위성(DTH)

2007년말 디지털위성 가입가구수는 8,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치는 전세계 디지털TV 가입가구수의 36%에 해당한다. 그러나 케이블, 디지털지상파, IPTV가 전세계 디지털TV 가입가구수 중 23%를 차지할 동안 디지털위성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위성의 가입가구수는 2007년에서 2012년까지 3,300만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까지 북아메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서유럽은 각각 3,800만명, 3,200만명, 3,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TV가구수의 약 8%는 디지털위성을 수신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위성의 보급률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또는 케이블 보급률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디지털위성 플랫폼이 주요한 매체로 자리잡으리라 기대하지 않는 반면 뉴질랜드나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아일랜드와 영국은 2012년에 TV가구수의 30% 이상의 보급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라. IPTV

IPTV는 텔레비전 산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새로운 매체라고 할 수 있다. IPTV는 기존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TV신호를 제공하는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하나의 신규서비스로 가능하게 되었다.

DSL 업그레이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들고 초고속인터넷은 TV신호를 제공하는 데 매우 유용하여 케이블 보급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2007년말에 IPTV 가입가구수는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2012년에

는 3,700만명에 이를 것이며 아시아와 서유럽이 전체 가입가구수의 78%(2,900만명)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IPTV는 니치(niche)시장에 적합한 TV 플랫폼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2년까지 전세계 TV가구수 중 3%만이 IPTV 신호를 수신할 것으로 보이며 서유럽에 있어서는 보급률이 8%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마. 디지털지상파(DTT)

디지털지상파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 면허를 발급하고 아날로그 전송이 끝나면서 향후 10년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지상파 수신가구수는 케이블과 디지털위성 그리고 IPTV 등을 수신하지 않는 가구로 계산했다. 디지털지상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2000년에 1,400만명에 불과했던 디지털지상파 수신가구수는 2007년말에 4,7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9,7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서유럽은 디지털지상파 제공에 있어 가장 활성화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2007년말에 세계 TV가구수의 약 4%만이 디지털지상파 신호를 수신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2012년에는 8%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아메리카의 경우 케이블과 디지털위성의 보급률이 높아 디지털지상파의 영향력이 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까지 서유럽이 34%의 수신율을 보이는 반면 북아메리카는 TV가구수의 9%만이 디지털지상파를 수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3. 결 어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전환특별법의 통과가 해를 넘기게 되었다. 올해는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한 IPTV 도입방안, 방송통신 통합기구 설립방안 등으로 이해당사자간 참여한 대립과 이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으로 디지털전환특별법은 그리 큰 빛을 보지 못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디지털 전환율 80% (primary set 기준)를 자랑하는 등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까지 디지털 전환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DTV에 대한 수요도 적은 상태이다.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관련 방송사, 가전업체와의 공조, 정부와 시민단체의 디지털 전환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디지털전환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의 수혜자가 국민과 시청자라는 점을 알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디지털전환특별법의 통과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되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자료:

- [1] Informa Telecoms & Media(2007). Global Digital TV(7th edition), 2007. 9.
- [2] \_\_\_\_\_. TVinternational Vol. 15, No. 19, 2007. 10. 26.
- [3] Ofcom(2007). Switchover Progress Report 2007 3Q, 2007. 11. 19.
- [4]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아이뉴스24 각 호.

## IDC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정보통신산업연구실 연구원 정현준  
(T. 570-4352, jjoon75@kisdi.re.kr)

### 1. 개요

국내 IDC(Internet Data Center) 시장은 2000년 6백억 원 수준에서 2006년 3천억 원으로 급성장하였고 내년에는 5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sup>1)</sup>

IDC 서비스는 인터넷 시대의 기업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인프라 서비스로서 코로케이션 서비스 및 호스팅 서비스 등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스템컨설팅에서 호스팅, 보안, 시스템 운용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IT아웃소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운영비용을 절약하고, 고품질의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정적인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IDC 시장 현황, 성장 동인, 산업 이슈 및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본다.

### 2. IDC 시장 동향

국내 IDC 시장은 1998년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가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면

1) 시장규모는 통신사업자 계열 IDC로 한정, “한국인터넷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2007), 전자신문(2007. 10. 26), “IDC시장 내년 7,000억 돌파” 재구성, 전자신문(2007. 10. 26)에 따르면 내년도 IDC 시장(통신사업자계열 + IT서비스업체 계열)은 7천억 원 규모로 전망됨.